‘三唐詩人’ 중 문학적 역량 가장 뛰어나

〈최경창 · 백광훈 · 이달〉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㉓ 손곡 이달

손곡 이달(蓀谷 李達, 1539~1612)은 조선 중기 인물이다. 서출로 태어나 신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었던 시대 상황에서 나라의 동량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타고 났지만 자신의 역량을 펴지 못한 채 불운한 세월을 보냈다.

잠시 한이학관(漢吏學官)을 지냈던 인연도 어린 시절부터 세상의 모든 책을 섭렵해 글에 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다. 한때 뜻이 맞는 고죽 최경창(孤竹 崔慶昌, 1539~1583)과 옥봉 백광훈(玉峰 白光勳, 1537~1582) 등과 시사(詩社)를 결성, 서로의 의지를 공유하며 흡족한 시절을 보냈으며, 사찰을 유람하며 승려와 깊이 교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삶에 여유와 깊이를 확장한 것은 그가 읊조린 시를 통해서였다.

그렇다면 세상을 울렸던 그의 글재주는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그 여정을 따라가 보면 고려의 문사 이첨(李詹, 1345~1405)의 후손이었다는 점이 그가 문재를 갖게 된 태생적 바탕일 것이다. 아울러 정사룡(鄭士龍, 1491~1570)에게 나아가 두보(杜甫, 712~770)를 배우고 박순(朴淳, 1523~1589)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했던 학연(學緣)이나 당대(唐代)의 두보뿐 아니라 〈문선(文選)〉을 중시하여 당풍(唐風)과 유사한 시작(詩作)을 탁마하고 중당시기의 대표적인 시인 유장경(劉長卿, 725~786)이나 위응물(韋應物, 737~792)의 시풍에도 관심을 두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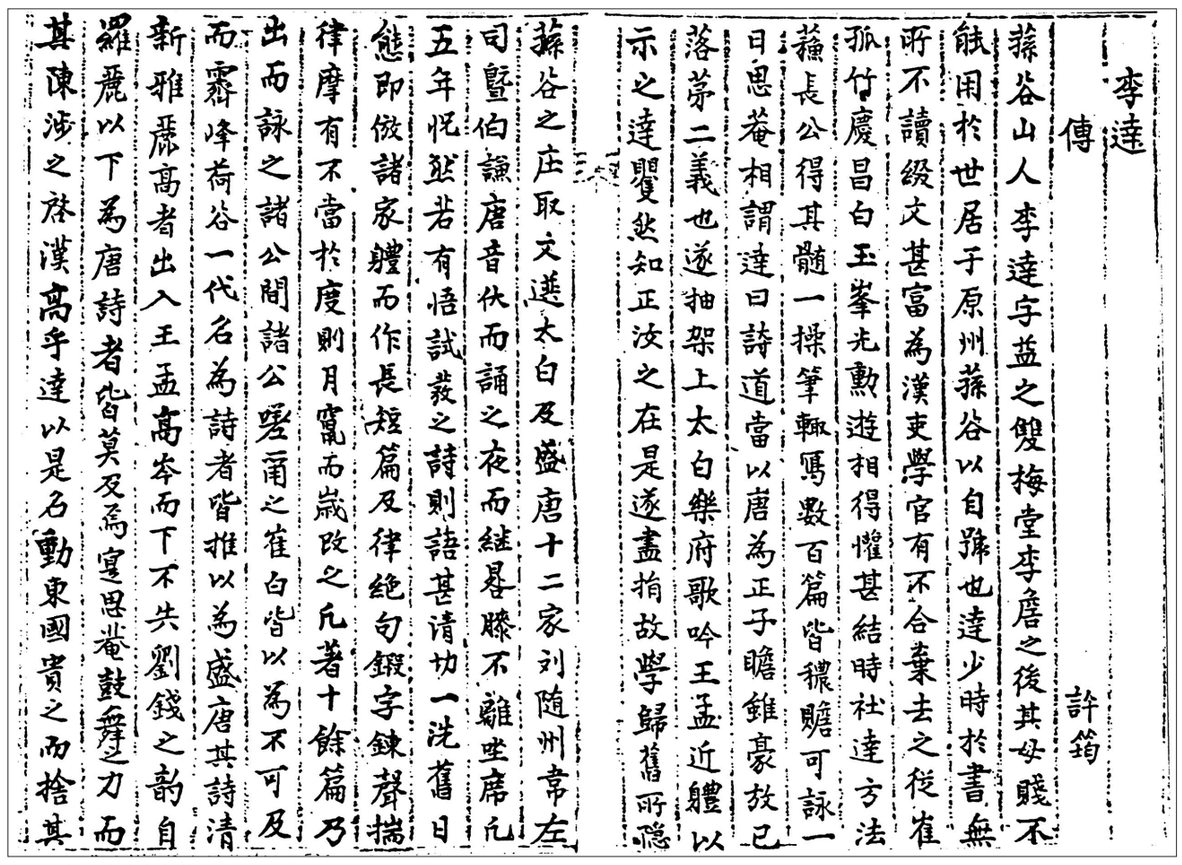
한편 그가 시에 출중했던 내력을 그의 제자 허균(許筠, 1569~1618)이 〈국조인물고〉 ‘이달전(李達傳)’에서 “바야흐로 소식을 본받아 그 정수(精髓)를 터득해 한번 붓을 잡으면 문득 수백 편을 썼는데, 모두 내용이 풍부하여 읊을 만하였다. 하루는 상공(相公) 사암(思菴) 박순(朴淳)이 이달에게 말하기를, ‘시도(詩道)는 마땅히 당(唐)나라 시대를 정통으로 본받아야 한다. 소자첨(蘇子瞻)이 비록 호방(豪放)하다고 하나 이미 낙제(落第)한 둘째이다’ 고 하면서 마침내 서가(書架)에서 이태백(李太白)의 〈악부가음(樂府歌吟)〉과 왕유(王維), 맹호연(孟浩然)의 근체시(近體詩)를 뽑아내어 보이자, 이달은 깜짝 놀라 정법(正法)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는 마침내 이전에 배운 것을 모두 버리고 전에 은거했던 손곡의 별장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시에 대한 탁마의 열의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다. 또 허균은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과 하곡(荷谷) 허봉(許篈)은 일대(一代)에 시를 잘 짓는다는 명성이 있는 자인데, 모두 추장(推奬)하기를, “성당(盛唐)의 시처럼 청신(淸新) 아려(雅麗)하여 아주 잘된 것은 왕유(王維), 맹호연(孟浩然), 고적(高適), 잠삼(岑參)을 넘나들며 잘못된 것도 유우석(劉禹錫)이나 전기(錢起)의 시보다 못하지 않으며, 신라(新羅)와 고려(高麗)로부터 그 이후 당시(唐詩)를 한 자들도 모두 따르지 못할 것이다”고 하였다. 따라서 후일 그가 ‘삼당시인(三唐詩人)’ 중에 문학적 역량이 가장 뛰어났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

한편 선(禪)과 도(道)를 추구하여 현실의 괴로움을 탈피하고자 했던 그는 유자(儒者)로서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실현할 수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초탈하기 위해 시를 지었던 것은 아닐까. 이리저리 떠돌며 걸식했던 그의 삶은 비루한 듯하지만 그의 높은 이상을 꺾을 수는 없었다. 더구나 그의 시는 만인이 흠모하는 시격(詩格)을 이뤘으니 이는 하늘의 은택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비교적 많은 승려들과 교유하며 승려들의 시축에 시를 썼고 승려들과 화운한 시도 여러 수를 남겼는데 이는 그의 삶에 일단을 드러낸 단서이다. 그의 문집 〈손곡집(蓀谷集)〉에 의하면 죽두암(竹頭菴), 성불암(成佛庵), 불일암(佛日菴) 등을 유람했고 도천사(道泉寺)의 명월료(明月寮)에서 머물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그와 교유했던 승려로는 불일암의 인운(因雲) 스님을 비롯해 근(勤) 스님, 도의(道義) 스님, 연(衍) 스님, 성행(性行) 스님, 윤(允) 스님, 감(鑑) 스님 등이 있었다. 우선 승려들과 관련된 여러 편의 시 중에 〈감 스님에게 주다(贈鑑上人)〉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밤 중대에서(憶昔中臺夜)
상원의 종소리, 함께 듣던 때가
생각나네(同聞上院鐘)
이십년 동안이나 헤어지지 못했으니
(雛二十載)
서로 얼마나 깊은 우정 나눈
사이였던가(雲樹幾千重)
가을 산골 물에 발우를 씻고
(洗鉢臨秋澗)
등나무에 의지하여 해 저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네(攀藤度夕峯)



李達傳

蓀谷山人李達字益之雙梅堂李彦瑾之後其母賤不齒於世居于原州蓀谷以自號也達少時於書無所不讀級文甚富為漢吏學官有不合棄去之後崔孤竹慶昌白玉峯光勳遊相得懽甚結詩社達方法蘇長公得其髓一操筆輒寫數百篇皆穠贍可詠一日思菴相謂達曰詩道當以唐為正子瞻雖豪放已落第二義也遂抽架上太白樂府歌吟王孟近體以示之達襲然知正汝之在是遂盡捐故學歸舊所聞

蓀谷之庄取文選太白及盛唐十二家刘随州常左司暨伯諭唐音伏而誦之夜而繼晷滕不離坐席凡五年恍然若有悟試裁之詩則語甚清切一洗舊日態即倣諸家體而作長短篇及律絶句鍛字鍊聲揣律摩有不當於度則月竄而歲改之凡著十餘篇乃出而詠之諸公聞諸公嗳爾之崔白皆以為不可及而霽峰荷谷一代名為詩者皆推以為盛唐其詩清新雅贍高者出入王孟高岑而下不失劉錢之韵自羅麗以下為唐詩者皆莫及為宜思菴鼓舞之力而捨其甚陳涉之胥漢高乎達以是名動東國實之而捨其

〈국조인물고〉 ‘이달전’

어렸을 때부터 책 섭렵
시에 대한 탁마 열의 커
성불암 · 불일암 유람하며
오랫동안 승려들과 교유

서로 만나 나이를 물었더니
(相逢問年歲)
각기 옛적 모습을 기이하게 여겼네
(各怪舊時容)

그가 말하는 감 승려가 어느 절에서 수행했던 수행자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달과의 교유는 이미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었던 듯하다. 그러기에 “이십년 동안이나 헤어지지 못했으니(雛二十載)/ 서로 얼마나 깊은 우정 나눈 사이였던가(雲樹幾千重)”라고 했으리라. 이 뿐 아니라 그가 한때 사찰에 머물며 감 승려와 깊이 정을 나눈 흔적은 “가을 산골 물에 발우를 씻고(洗鉢臨秋澗)/ 등나무에 의지하여 해 저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네(攀藤度夕峯)”라고 한 대목이다. 이뿐 아니라 윤 스님의 시축에 차운해 준 그의 시 〈윤 스님의 시축에 차운하다(次允上人軸)〉에서도 유불(儒佛)의 교유는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 내용은 이렇다.



손곡집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

나그네 머물며 상봉하던 곳
(逆旅相逢處)
서리에 계수나무 가지가 시들었네
(淸霜凋桂枝)
일엽편주로 광릉에서 이별할 제
(扁舟廣陵別)
여러 해, 낙양을 기약했지
(數歲洛陽期)
동병에 맑은 산골 물을 길어다가
(秋澗銅甁汲)
새벽 재계하며 석발을 유지했네
(晨齋石鉢持)
함께 해상사를 찾아드니(同尋海上寺)
종소리 듣던 때가 생각나누나
(却憶聽鍾時)

이들 또한 오랜 교유가 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일엽편주로 광릉에서 이별할 제(扁舟廣陵別)/ 여러 해, 낙양을 기약했지(數歲洛陽期)”라고 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함께 해상사라는 절을 찾아 유람할 때에 절에서 듣던 종소리가 가장 인상 깊었던가보다. 그들이 해상의 절에서 들었던 종소리는 해조음 같았던 듯하다. 혹자는 상원사의 종소리를 잊지 못한다고 한다. 겹겹이 퍼져 흐르는 상원사의 종소리, 해조음을 내며 퍼져 울릴 때 그 종소리는 천상의 소리로 범종(梵鐘)의 극치라 칭송한다. 따라서 이들이 들었던 해상사의 종소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진 최상의 범음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달의 시 중에 유독 “종소리를 듣던 때”를 회상하는 구절이 많은 연유를 짐작할 만하다. 또 다른 그의 시 〈산승이 송엽을 보내왔기에 사례하여(謝山僧惠松葉)〉라는 시에는 그가 도가에도 밝았던 인물임을 나타낸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다.

(솔잎을)따서 먹으며 신선의 비방을
증명했고(采服徵仙秘)
신령한 정신, 도방을 증험했네
(靈神驗道方)
홀로 겹겹이 높고 험한 곳 찾아가서
(獨尋層 碧)
늙은 가지 휘어잡아 푸른 송엽을 따네
(攀折老枝蒼)
돌방아 찧는 소리, 고요해지자
(雲 時靜)
맛있는 술 주머니, 곳곳에 향기를
보내네(霞囊贈處香)

오늘 한번 마셔보니(今朝試一吸)
온몸이 금빛이로다(五內發金光)

옛적에 솔잎을 장복하는 비방(秘方)은 선가의 비기(秘技)였지만 도 높은 수행자도 이 비방을 따르는 이가 많았다. 그러므로 “(솔잎을)따서 먹고 신선의 비방을 증명했고(采服徵仙秘)/ 신령한 정신, 도방을 증험했던(靈神驗道方)” 인물은 그와 교유했던 산승이었다. 그에게 솔잎을 보내온 승려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와 깊이 교유했던 승려는 “홀로 겹겹이 높고 험한 곳 찾아가서(獨尋層碧)/ 늙은 가지 휘어잡아 푸른 송엽을 땄을 것(攀折老枝蒼)”이다. 따라서 험준한 곳에서 딴 솔잎으로 만든 영약은 한번만 마셔도 “온몸에서 금빛(五內發金光)”을 발하는 묘약이었던 셈이다.

한편 그가 불일암(佛日庵)의 인운 스님에게 써준 시는 ‘시여화(詩如畵, 시가 곧 그림)’라는 격조를 드러낸 것으로 마치 위응물(韋應物)의 시를 안전(眼前)에서 보는 듯하다. 〈불일암 인운 스님에게 주다(佛日庵 贈因雲僧)〉는 다음과 같다.

산은 백운 속에 있는데(山在白雲中)
승려는 흰 구름, 쓸지 않네
(白雲僧不掃)
객이 와서 비로소 문을 여니
(客來門始開)
온 골짜기가 송화 가루라(萬壑松花老)

불일암은 구름 속에 있는 암자였다. 이곳의 수행자는 구름을 쓸지 않기에 고요한 선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런 시를 읊조린 이달은 세속의 속유(俗儒)와는 비교될 수 없었던 인물이었다. 그의 품색이 고상하지 못하고 세속의 예에도 밝지 않다는 당시의 평가도 있었던 듯한데 이는 그의 진면목을 헤아리지 못한 범인들의 잣대이다. 실제 그의 시어 속에 담긴 담담한 속내는 무변(無邊)의 웅지(雄志)를 품었던 사람임을 분명히 하였다.

“객이 와서 비로소 문을 여니(客來門始開)/ 온 골짜기가 송화 가루라(萬壑松花老)”던 불일암. 이런 수행의 환경을 닮은 인운 승려과 교유했던 이달의 안목은 세인과는 차별되는 눈을 가졌던 것이라 하겠다. 조선 중기 아름다운 유불의 종유(從遊)를 실천했던 이달의 자는 익지(益之)이다. 손곡(蓀谷) · 동리(東里) · 서담(西潭)이라는 호를 썼고 저술로는 〈손곡집(蓀谷集)〉을 남겼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
23274964492600

■ 강의내용 : 4 ~ 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제 5기
범음 범패 학당 모집
불교의식, 작법, 밸런스테크닉, 실전사주명리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범패의식 : 천도재 및 바라, 오공양작법, 실전강의, 각 사물 등
◆개강일시 : 2016년 6월 27일 오후 3시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 수강료 10만원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까지
◆문의처 : 010-5065-5690 / 범패원장 제봉 스님

밸런스테크닉
◆놀라운 10초 통증제어 (수기치유)
◆월1회 집중 특강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경력 : 30년 기공수련 / 월회비 : 10만원
◆연락처 : 010-6462-1859 (지도강사 : 선혜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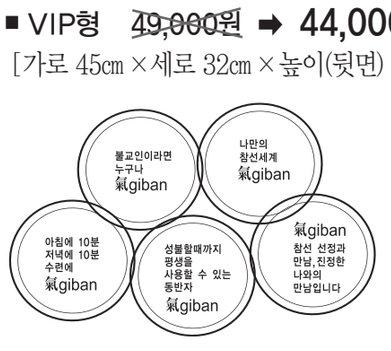
실전사주명리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3시까지
◆지도강사 : 진제스님 (경력 30년 상담 및 지도)
◆6월 27일 개강 / 연락처 010-8948-7948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수협 2층)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수기치유, 실전사주명리를 집중 지도합니다.
(사)영남범음범패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